

수능특강 67쪽



규원가 | 허난설헌

옛그제 저멋더니 **흐마** 어이 다 늘거니

소년 **행락**(少年行樂)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 
늘거야 서른 말습 **흐자니** 목이 멘다

㉠부생모육(父生母育) **신고**(辛苦) **흐야**<sup>1)</sup> **이내** 몸 길러 널 제

㉡공후 배필(公侯配匹)<sup>2)</sup>은 못 바라도 **군자호구**(君子好逑)<sup>3)</sup> **원**(願) **흐더니**

삼생(三生)의 **원업**(怨業)이오 **월하**(月下)<sup>4)</sup>의 **연분**(緣分)으로

㉢장안 유협(長安遊俠) **경박자**(輕薄子)<sup>5)</sup>를 **꿈근치** 만나 **잇서**

당시(當時)의 **용심**(用心) **흐기** 살어름 디되는 듯

삼오 **이팔**(三五二八) 겨오 지나 **천연** 여질(天然麗質)<sup>6)</sup> **절로** 이니

이 **얼굴** 이 태도(態度)로 **백년** 기약(百年期約) **흐얏** 더니

**연광**(年光)이 **홀홀** **흐고** **조물**(造物)이 **다시**(多猜) **흐야**

**봄바람** 가을 **물**이 **뵈오리**<sup>7)</sup> **북** 지나듯

**설빈** **화안**(雪鬢花顏)<sup>8)</sup> **어디** 두고 **면목가증**(面目可憎)<sup>9)</sup> **되거**고나

**내** **얼굴** **내** **보거**니 **어느** **님이** **날** **필소**냐<sup>10)</sup>

스스로 **참괴**(慚愧) **흐니** **누구**를 **원망**(怨望) **흐리**

㉣삼삼오오(三三五五) **야유원**(冶遊園)<sup>11)</sup>의 **새** **사람** **이** **나단** **말가**

**곳** **피고** **날** **저물** 제 **정처**(定處) **업시** **나가** **잇어**

**백마** **금편**(白馬金鞭)<sup>12)</sup>으로 **어디**어디 **머무**는고

**원근**(遠近)을 **모르**거니 **소식**(消息)이야 **더** **알라**

**인연**(因緣)을 **긋**쳐**신들** **싱각**이야 **업**슬**소**냐

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든

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(支離) **흐**다

옥창(玉窓)에 심근 매화(梅花) 몇 번이나 띄어 **진**고

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**섯**거 **치고**

[A]

여름날 길고 길 제 **구**즌**비**는 **므스** **일**고

삼춘 화류(三春花柳) 호시절(好時節)의 **경물**(景物)이 **시름**업다

가을 들 방에 들고 **실술**(蟋蟀)이 **상**(床)에 **울** 제

**긴** **한숨** **디는** **눈물** **속절**업시 **험만** **만타**

**아마도** **모진** **목숨** **죽기도** **어려**울사 (중략)

출하리 **잠**을 **드러** **꿈**의나 **보려** **흐**니

**바람**의 **디는** **넓**과 **풀** **속**에 **우는** **증**성

**므스** **일** **원수**로서 **잠**조차 **깨**오**느**다

㉤**천상**(天上)의 **견우**직녀(牽牛織女) **은하수**(銀河水) **막혀**서도

**칠월** **칠석**(七月七夕) **일년** **일도**(一年一度) **실기**(失期) **치** **아니**거든

**우리** **님** **가신** **후**는 **무슨** **약수**(弱水)<sup>13)</sup> **가**렸**판**디

**오**거나 **가**거나 **소식**조차 **쓰**쳤는고

**난간**(欄干)의 **비**겨 **셔**서 **님** **가신** **뒤** **바**라**보**니

**초로**(草露)는 **맺**쳐 **잇**고 **모운**(暮雲)이 **디**나갈 **제**

**죽림**(竹林) **푸**른 **고**딧 **새**소리 **더** **욱** **설**다

**세**상의 **서**른 **사**람 **수**업다 **흐**려**니**와

**박**명(薄命) **흐** **홍안**(紅顏)이야 **날** **가**트니 **또** **이**실**가**

**아**마도 **이** **님**의 **지**위로 **살**동**말**동 **흐**여**라**

- 허난설헌, <규원가(關怨歌)>

▶ [1~15행] 과거에 대한 회상과 늘어 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, [16~29행]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, [(중략) 부분]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래며 견뎌, [30~42행] 임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며 서러움과 원망을 토로함.

[어휘 풀이]

1) 신고 **흐야** - 몹시 고생하여. 2) 공후 배필 -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. 3) 군자호구 -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. 4) 월하 - 월하노인의 준말. 남편을 중매하는 역할을 맡음. 5) 경박자 - 경박한 사람. 6) 천연 여질 -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. 7) 뵈오리 - 벼슬에 걸린 벼슬 사이에. 8) 설빈 화안 - 고운 머리채와 젊고 아름다운 얼굴. 9) 면목가증 - 얼굴 생김새가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. 10) 필소냐 - 사랑할 것이냐. 11) 야유원 - 난 봉꾼이나 한량들이 노는 곳. 술집. 12) 백마 금편 -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. 호사스러운 행장. 13) 약수 -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강. 부력이 매우 약해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.

[현대어 풀이]

옛그제 젊었는데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 버렸는가?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을 해야 소용이 없구나. 이렇게 늙은 뒤에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메이는구나.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,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을 바라지 못할지라도,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,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, 시집 간 뒤에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하였다.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

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, 이 얼굴과 이 태도로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바랐더니,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시샘이 많아서 봄 바람과 가을 물, 곧 세월이 베의 올이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,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두고 보기도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. 내 얼굴을 내가 보거나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?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?

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?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스런 차림새로 어디에서 머물러 노는가?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는데 남편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겠는가? 인연을 끊었지만은 생각이야 안 나겠는가? 얼굴을 못 보니 그림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, (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)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. 한 달이 지루하기만 하구나.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? 겨울 밤 차고 찬 때 진논깨비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 비는 무슨 일인가?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. 가을 달빛이 방을 비추어 들어오고 꾸꾸라미 침상에서 울 때,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어 생각만 많다. 아마도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려우나 보구나.

돌이켜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? 등불을 돌려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면화 한 곡조를 시름으로 함께 섞어 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에 덧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, 망주석에 천 년 만에 찾아온 이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, 아름다운 여자의 손(나의 손)으로 타는 거문고 솜씨는 옛날 가락이 그대로 있다 마는 연꽃무늬의 휘장이 드리워진 방안에 텅 비었으니, 누구의 귀에 들려지겠는가? 간장이 아홉 굵이가 되어 굵이굽이 끊어질 듯 애통하구나.

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임을 보려고 하였더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별레는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?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려졌길래 온다간다는 소식마저 그쳤을까?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가는 때이구나. 대숲 우거진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.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운명이 기구한 젊은 여자가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? 아마도 임의 뜻으로 살 듯 말 듯 하구나.



<규원가>

☑ 시구 풀이

- **옛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**
  - '젊었던 과거'와 '늙은 현재'의 대조다.
- **소년 행락(少年行樂)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**
  - '늙음에 대한 탄식'이다.
- **늘거야 서른 말씀 흐자니 목이 멘다**
  -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늙어 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.

- **부생모육(父生母育) 신고(辛苦)하야<sup>1)</sup> 아내 몸 길러 낼 제**
  -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
- **공후 배필(公侯配匹)<sup>2)</sup>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(君子好逑)<sup>3)</sup> 원(願)하더니**
  -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어도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바랐던 화자의 과거 소망이 담긴 부분이다.
- **삼생(三生)의 원업(怨業)이오 월하(月下)<sup>4)</sup>의 연분(緣分)으로**
  -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, 부부의 인연으로
  - 현재의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구절로, 불교의 윤회 사상과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.
  - '부부의 인연'에 대해 '월하의 연분'이라 표현하는 것도, 관습적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표현이기에, 본 대목에서 '관습적 표현'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
- **장안 유협(長安遊俠) 경박자(輕薄子)<sup>5)</sup>를 꿈근치 만나 잇서**
  -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
  - 자신의 임(남편)을 놀기 좋아하고 행동이 경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는 무조건 임에게 순종하는 인물이 아니며, 임의 행동에 대해 원망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.
  - 여기서 '꿈'은 '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떤 것'이다.
- **당시(當時)의 용심(用心)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**
  - 시집 간 뒤에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하였다.
- **삼오 이팔(三五二八) 겨오 지나 천연 여질(天然麗質)<sup>6)</sup> 절로 이니**
  -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
  - '천연 여질' 역시 화자가 딱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사용한 어휘가 아닌, 당대의 젊은 여자를 관습적으로 가리키던 말이다.
- **이 얼굴 이 태도(態度)로 백년 기약(百年期約) 하얏더니**
  - 이 얼굴과 이 태도로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바랐더니
  - 여기까지가 '과거' 얘기다.
- **연광(年光)이 훌훌하고 조물(造物)이 다시(多猜)하야**
  -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시샘이 많아서
  - 세월 앞에 장사 없다. 세월은 가기 마련이고 외모는 망가지기 마련이다.
- **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<sup>7)</sup> 북 지나듯**
  - 봄바람과 가을물, 곧 세월이 베의 올이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
  - '뵈오리 북'은 '세월'을 비유한 단어다. 세월이 빠르게 지나

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, 여성의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에 비유한 것을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.

• 설빈 화안(雪鬢花顏) 어디 가고 면목가증(面目可憎) 되었구나

- '설빈화안'은 '과거의 화자'를 비유한 표현이고, '면목가증'은 '현재의 화자'를 가리키는 표현이다. 과거와 현재의 대조다.

-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.

•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님이 날 꺾소냐<sup>10)</sup>/ 스스로 참괴(慚愧)하니 누구를 원망(怨望)하니

- 내 얼굴을 내가 보거나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?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?

- '수원수구(誰怨誰咎 :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할 것인가)'라는 사자성어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. **이런 노래를 자리감마 한다.**

• 삼삼오오(三三五五) 야유원(冶遊園)<sup>11)</sup>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/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(定處) 업시 나가 있어/ 백마 금편(白馬金鞭)<sup>12)</sup>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

-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?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스런 차림새로 어디에서 머물러 노는가?

- 기생집을 드나들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으로 인한 화자의 괴로움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.

-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,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보여 준다.

• 원근(遠近)을 모르거나 소식(消息)이야 더욱 알라

-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는데 남편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겠는가?

• 인연(因緣)을 갖춰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나

- 임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.

- 밖으로 전전하는 남편과는 인연이 끊겼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.

• 얼굴을 못 보거나 그림기나 마르려든

- 얼굴을 못 보니 그림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

- 집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,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.

• 열두 해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리(支離)하디

- (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)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. 한 달이 지루하기만 하구나.

- '하루'를 '열두 해'라고 표현하고 '한 달'을 '서른 날'이라고 표현한 것은 숫자를 늘려서 나타내어 시간의 길이를 강조하고자 함이다.

• 옥창(玉窓)에 심근 매화(梅花) 몇 번이나 띄여 진고

-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?

- 매화의 피고 짐을 통해, 화자가 남편을 기다리게 된 지(남여러 해가 지났음을 알 수 있다.

•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/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므스 일고

- 겨울 밤 차고 찬 때 진눈깨비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곳은 비는 무슨 일인가?

- '자취눈'은 '발자국이 날 만큼만 겨우 내린 눈'을 가리킵니다. '겨울 밤'인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심해질 것인데, 눈까지 흠날리고 있으니, 화자의 외로움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.

- 화자를 쓸쓸하고 외롭게 만드는 '겨울밤'과 '여름날'을 통해, 화자가 짧은 시간이 아닌 꽤 오랜 시간을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삼춘 화류(三春花柳) 호시절(好時節)의 경물(景物)이 시름업다

-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 때문에 즐겁지가 않다는 뜻을 담은 말로,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서글픈 정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.

•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술(蟋蟀)이 상(床)에 올 제/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

- 가을 달빛이 방을 비추어 들어오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올 때,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도다.

- '실술(귀뚜라미)'는 울고 있다는 점에서, 감장이입이자 의인화된 표현이다.

•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

-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, 내 마음이 이리도 아프지만, 사람의 목숨이 너무도 질긴 까닭에, 쉽게 죽을 수도 없으니, 내 마음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구나

- 사계절이 흘러 해가 바뀌어도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자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/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/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

- 임을 잊고자 했지만 잊을 수 없어 차라리 꿈속에서 임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풀벌레 소리 때문에 이를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간절함을 알 수 있다.

- 현실에서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시적 화자가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려 하지만 '지는 잎'과 '풀벌레'들이 시적 화자의 잠을 깨워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고 있다. 여기에서 '지는 잎'과 '풀벌레'는 시적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.

• 천상(天上)의 견우직녀(牽牛織女) 은하수(銀河水) 막혀서도/ 칠월 칠석(七月七夕) 일년 일도(一年一度) 실기(失期)치 아니거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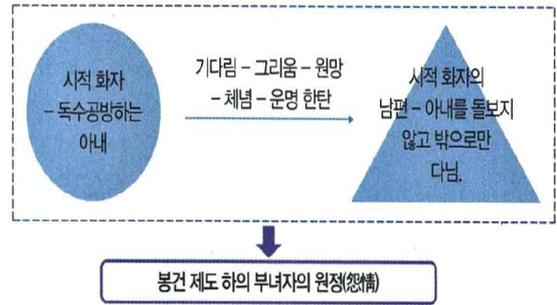
-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

일 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

- **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(弱水)<sup>13)</sup> 가렛관디**
  -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려졌길래
  - '약수'는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의 깃털조차 뜨지 못하고 가라 앉는 까닭에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전설 상의 강을 가리킨다. 즉, 장애물인 것이다.
- **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쓰쳤는고**
  - 온다 간다 하는 소식조차 나는 들을 수 없는 것인가
  - 한 통의 소식도 없는 무심한 '임'을 화자가 원망하고 있다.
- **난간(欄干)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덕 바라보니/ 초로(草露)는 맺쳐 있고 모운(暮雲)이 지나갈 제**
  -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가는 때이구나.
  - '눈물'을 연상하게 하는 '초로'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'모운'을 통해, 본 행이 대구법을 활용하여('~는 ~고, ~이 ~제') 화자의 서글픈 마음을 운율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.
- **죽림(竹林) 푸른 고덕 새소리 더욱 설다**
  - 대숲 우거진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.
  - '서러운 새소리'는 화자의 서러운 마음이 새에 투영된 결과이기에, 본 대목과 관련하여, '화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'
- **세상의 서러운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/ 박명(薄命)흔 홍안(紅顏)이야 날 가트니 쯔 이실가**
  -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운명이 기구한 젊은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?
  - 자신의 삶이 가장 '박명하다'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, 화자가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.
- **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**
  - 아마도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구나.
  - '님의 탓으로'라는 구절을 통해, 화자가 자신의 현 처지에 대해(젊은 나이에 임 없이 홀로 지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) 임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.
  - 임을 탓하고 있는 화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, 화자가 자신의 현 상황을 대함에 있어서,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아닌,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.

☑ 특징

- 갈래: 규방(내방)가사
- 성격: 원망적, 체념적, 한탄적, 고백적
- 다양한 대상에 화자의 심정 투영(비유)
- 한자와 고사성어를 이용한 유려한 작품 분위기
- 대조, 대구, 감정이입(실술, 새)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.



✓ 규원가의 내용과 화자의 태도

구성	중심 내용	화자의 태도
기	과거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흐르는 세월에 대해 한탄함.</li> <li>• 임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여김.</li> <li>• 자신의 신세에 대해 자조함.</li> </ul>
승	임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탕한 임을 원망함.</li> <li>• 세월을 보내기 어려움을 한탄함.</li> </ul>
전	거문고를 타며 외로움과 한을 달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로움과 한스러운 삶을 스스로 달래 보려 함.</li> </ul>
결	임을 기다리며 운명을 한탄함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신의 신세에 대해 자조함.</li> <li>•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비난함.</li> </ul>

※ 허난설헌, <규원가>

- 주제: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외로이 늙어 가는 자신에 대한 한탄
- 해제: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규방 가사이다. 봉건적 윤리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요되던 조선 시대,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여인의 리로움과 한스러움이 잘 드러난다.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고도 애절하게 표현하면서도 절제를 잃지 않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된다. 시적 화자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비애감이 응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
- 구성
  - [1~15행] 과거에 대한 회상과 늙어 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
  - [16~29행]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
  - [30~42행]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래며 견뎌
  - [30~42행] 임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며 서러움과 원망을 토로함.